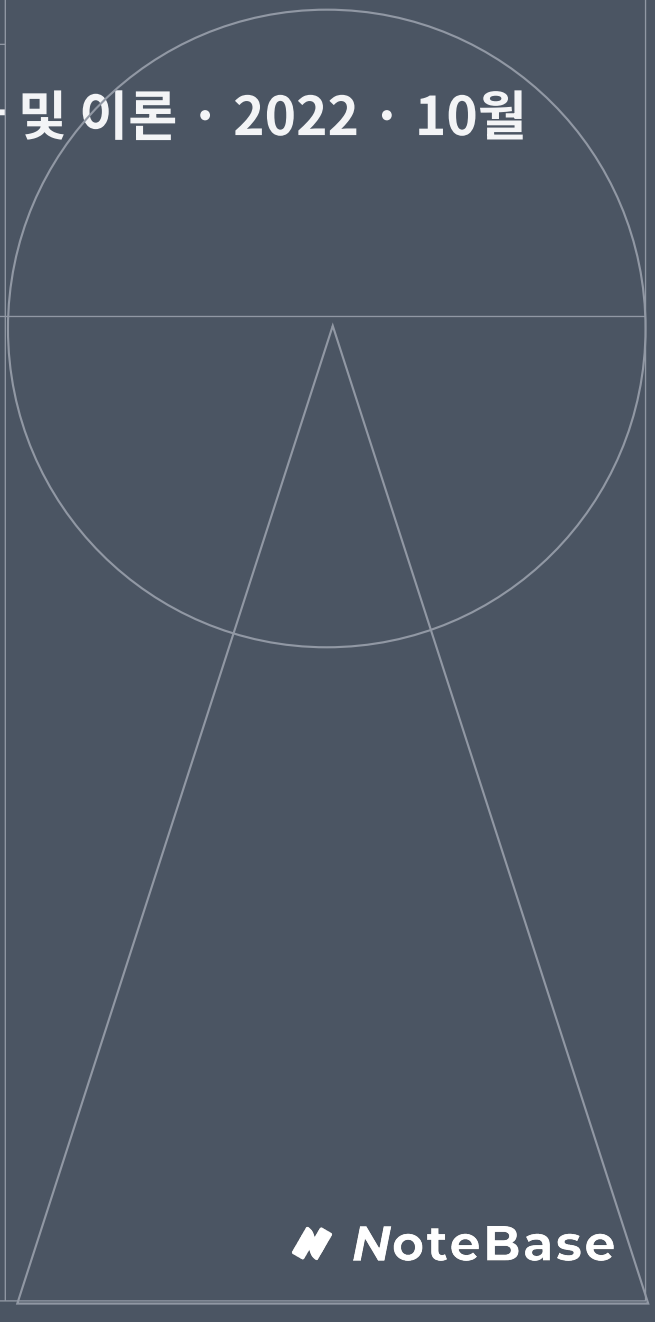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22 · 10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22 · 10월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사 및 이론 · 2022 · 10월

문 1. 프랑스 베르사유(Versailles) 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르비콩트 설계를 담당했던 르 노트르, 르 보, 푸케가 재설계에 참여하였다.

② 수경 요소로는 물극장, 물화단, 라토나분수, 아폴로분수, 수로(canal)가 해당된다.

③ 공간은 축과 그 축을 가로지르는 부축들에 투영되도록 고안했다.

④ 루이 14세가 정원을 산책할 때 소년들과 깃발이 동원되어 분수를 작동시켰다는 일화가 존재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베르사유 정원의 조성 배경, 축선 구성, 수경시설, 운영 일화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베르사유 정원은 프랑스식 정형정원의 대표 사례로서 강한 중심축, 이를 보조하는 부축, 기하학적 보스케, 대규모 수경시설로 질서를 만드는 정원이다.
보르비콩트는 베르사유에 선행한 모델로 자주 함께 언급되며, 핵심 조성진은 르 노트르, 르 보, 르 브룅이다.
푸케는 보르비콩트의 발주자이자 후원자이지 설계 담당자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보르비콩트의 설계를 담당한 인물군을 적는 문장처럼 보이지만, 틀린 부분은 "푸케가 재설계에 참여하였다"이다.
푸케는 보르비콩트의 소유자이자 후원자였고 설계 담당자는 아니었다. 올바르게는 르 노트르, 르 보, 르 브룅이 베르사유 조성의 핵심 인물로 이어진다.

② O
물극장, 물화단, 라토나분수, 아폴로분수, 대운하인 수로(canal)는 모두 베르사유 정원의 대표적 수경 요소에 해당한다.
이 선지는 베르사유가 축선만이 아니라 물의 연출까지 결합한 정형정원이라는 점을 정확히 짚는다.

③ O
베르사유 정원은 중심축을 따라 원근감 있게 전개되고, 이를 가로지르거나 보완하는 부축과 보스케가 기하학적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공간이 축과 부축의 체계에 투영되도록 고안되었다는 설명은 맞다.

④ O
베르사유의 분수는 수압과 용수 한계 때문에 왕의 동선에 맞추어 필요한 구간을 집중적으로 가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년들과 깃발 등 인력과 신호를 동원해 분수를 작동시켰다는 일화는 이러한 운영 방식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①은 보르비콩트와 베르사유를 연결하는 역사 서술처럼 보여서 발주자와 설계자를 한 묶음으로 읽기 쉽다.
푸케는 후원자이고, 르 노트르·르 보·르 브룅은 실제 설계와 조형을 담당한 인물이라는 구분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프랑스식 정형정원 문제는 먼저 중심축, 부축, 기하학, 대규모 분수와 수로가 보이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인물 선지가 나오면 발주자와 실제 설계자를 분리해서 읽으면 오답을 줄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베르사유는 축선과 분수의 정원이고, 푸케는 발주자이며 설계 핵심은 르 노트르·르 보·르 브룅이다.

NoteBase

문 2. 압바스(Abbas) 왕이 정비한 이스파한(Isfahan)의 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정원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전개된다.

② 페르시아 정원 양식을 계승하여, 정원·궁전 및 모스크의 광대한 복합체를 이룬다.

③ 40주궁(柱宮)의 정원은 긴 수로·잔잔한 연못·규칙정연한 화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마이단(Maidan)은 중심의 궁전과 교외 정원을 잇는 7km의 길로 도로공원의 원형으로 평가받는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압바스 왕 시기 이스파한의 핵심 공간 요소인 마이단, 차하르바그, 40주궁과 정원도시 구성을 정확히 대응시키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압바스 왕이 정비한 이스파한은 페르시아 정원 전통을 도시 규모로 확장한 사례이다. 중심의 마이단은 기념적 광장이고, 차하르바그는 궁전권과 교외 정원을 잇는 축선형 대로이며, 40주궁은 수반과 기하학적 화단이 강조된 궁원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압바스 시기 이스파한은 개별 정원이 점처럼 흩어진 도시가 아니라 정원과 가로, 수공간이 연결된 정원도시 개념으로 이해된다. 소정원이 연속되며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원처럼 전개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2번: O. 이스파한은 페르시아 정원 전통을 계승하면서 궁전, 정원, 모스크, 광장을 통합한 대규모 도시 복합체로 정비되었다. 정원·궁전 및 모스크의 광대한 복합체라는 설명은 이스파한의 공간 구성과 맞는다.
3번: O. 40주궁의 정원은 긴 수로와 반영수면, 질서정연한 화단 구성으로 대표된다. 궁전 전면의 긴 수반과 축선적 정원 구성은 페르시아 궁원 양식의 전형적 특징이다.
4번: X. 틀린 부분은 "마이단(Maidan)은 중심의 궁전과 교외 정원을 잇는 7km의 길"이라는 연결이다. 중심부와 교외 정원을 잇는 장대한 축선형 가로는 차하르바그이며, 마이단은 이스파한 중심에 놓인 대광장이다. 틀린 표현을 고치면 "차하르바그는 중심의 궁전과 교외 정원을 잇는 긴 가로축으로 도로공원의 원형으로 평가된다"가 된다.

오답 포인트

마이단과 차하르바그는 모두 압바스 시기 이스파한의 대표 공간이어서 서로 바꿔 붙이기 쉽다. 이 문항은 광장형 중심 공간과 선형 연결 가로를 혼동하는지를 노린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스파한 관련 선지는 공간의 형태를 먼저 구분하면 된다. 중심의 넓은 광장이면 마이단, 궁전과 정원을 길게 잇는 축선형 가로이면 차하르바그, 수반과 화단이 강조된 궁원이면 40주궁으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마이단은 중앙 광장, 차하르바그는 정원 가로축, 40주궁은 수반과 화단의 궁원이다.

NoteBase

문 3. 영국 정형식 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탈리아 양식과 프랑스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

② 대표적 사례로 로샴(Rousham), 햄프턴 코트(Hampton Court) 등이 있다.

③ 방형의 테라스를 설치하고 벽·화분 등으로 소로를 장식하였다.

④ 기하학적 정형성을 갖춘 축산(mound)을 즐겨 사용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영국 정형식 정원의 조형 요소와 영국 풍경식 정원의 대표 사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영국 정형식 정원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정형식 정원 영향을 받아 축선, 테라스, 기하학적 구성, 축산 등을 사용하는 양식이다.
영국 풍경식 정원은 자연지형을 살리고 비정형적이며 회화적인 경관을 만드는 양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영국 정형식 정원은 르네상스 이탈리아 정원과 프랑스 정형식 정원의 영향을 받아 발달하였다. 축선과 기하학적 구성은 이 계통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X
틀린 부분은 "로스햄(Rousham)"이다. 로스햄은 영국 풍경식 정원의 대표 사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영국 정형식 정원의 대표 사례로는 햄프턴 코트 등이 해당하므로, 이 선지는 정형식과 풍경식을 혼동한 설명이다.

③ O
영국 정형식 정원은 방형의 테라스를 두고 소로를 병, 화분, 조각물 등으로 장식하는 구성을 보였다. 평탄한 기하학 구성과 장식성이 강한 점이 정형식의 특징과 맞는다.

④ O
축산(mound)은 인공적으로 흙을 쌓아 만든 기하학적 둔덕으로, 전망과 공간 강조를 위해 영국 정형식 정원에서 즐겨 사용된 요소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영국 정원을 하나의 범주로만 외우면 정형식과 풍경식의 대표 사례가 섞이기 쉽다. ②는 햄프턴 코트와 로스햄을 한 줄에 묶어 놓아 둘 다 같은 계열로 보이게 만든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표 사례를 묻는 선지는 먼저 정원의 기본 성격부터 나누면 된다. 축선, 테라스, 기하학 화단, 축산이면 정형식이고, 자연지형, 비정형 곡선, 회화적 경관이면 풍경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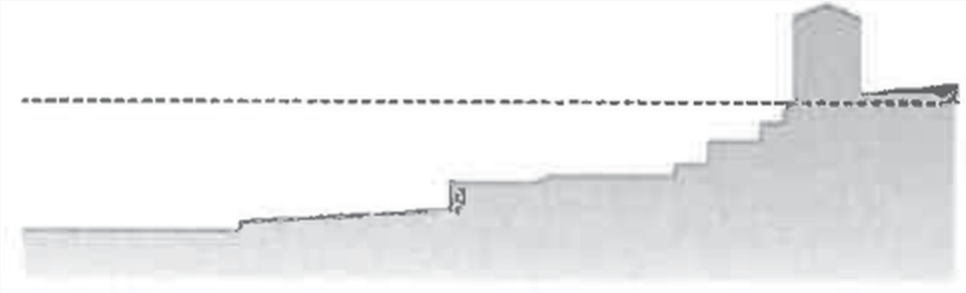
햄프턴 코트는 정형식, 로스햄은 풍경식이라는 대비가 핵심이다.

NoteBase

문 4.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빌라정원은?

<보기>

• 카지노(casino)가 노단 상단에 위치



• 건축과 조경은 리고리오, 수경은 올리비에리가 설계

• 백 개의 분수, 넵튠의 분수, 물풍금 등 물을 다양하게 이용

① 빌라 란테(Villa Lante)

② 빌라 데스테(Villa d’Este)

③ 빌라 알도브란디니(Villa Aldobrandini)

④ 빌라 메디치 피에졸레(Villa Medici at Fiesole)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사지 단면과 수경 시설 명칭을 단서로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빌라정원의 대표 사례를 식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빌라 란테는 바뇨이아의 정원으로 두 개의 카지노와 절제된 테라스 수로 구성이 핵심이다. 보기처럼 리고리오가 건축과 조경을 맡고 백 개의 분수와 넵튠의 분수로 대표되는 정원과는 다르다.
틀린 표현은 '빌라 란테'이다. 올바르게는 빌라 데스테이다.

② O
빌라 데스테는 티볼리의 경사지에 상부 카지노를 두고, 피로 리고리오가 정원 구성을 주도한 대표적 수경 정원이다. 백 개의 분수, 넵튠의 분수, 물풍금처럼 물을 과시적으로 사용하는 점이 보기의 설명과 정확히 맞는다.

③ X
빌라 알도브란디니는 프라스카티의 빌라로 수극장과 장대한 전면 구성이 두드러진다. 보기처럼 백 개의 분수와 넵튠의 분수로 특정되는 정원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빌라 알도브란디니'이다. 올바르게는 빌라 데스테이다.

④ X
빌라 메디치 피에졸레는 초기 르네상스 빌라로 조망과 테라스의 질서가 중심이며, 빌라 데스테처럼 대규모 분수 체계와 물풍금을 전면에 내세운 정원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빌라 메디치 피에졸레'이다. 올바르게는 빌라 데스테이다.

오답 포인트

경사지 정원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빌라 란테와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제의 결정 단서는 '리고리오'와 '백 개의 분수·넵튠의 분수·물풍금'의 조합이며, 이 조합은 빌라 데스테를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탈리아 빌라정원 문제에서는 먼저 설계자 이름과 고유 수경 시설 명칭을 확인한다. '리고리오-백 개의 분수-넵튠의 분수-물풍금'이 함께 나오면 빌라 데스테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데스테는 리고리오와 대규모 수경 장치, 란테는 절제된 테라스와 쌍둥이 카지노로 구분된다.

NoteBase

문 5. <보기>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옐로우스톤(Yellowstone) 국립공원 지정
ㄴ. 뉴저지 레드번(Radburn) 계획 실시
ㄷ. 센트럴파크 조성을 위한 그린스워드(Greensward) 공모안 당선
ㄹ. 세계 조경가협회(IFLA) 창립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ㄷ - ㄹ - ㄴ
③ ㄷ - ㄱ - ㄴ - ㄹ
④ ㄷ - ㄴ - ㄱ -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양 조경사 주요 사건의 연대 선후관계를 묻는 순서형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ㄷ. 센트럴파크 조성을 위한 그린스워드 공모안 당선 - 1858년에 올름스테드와 보가 중앙공원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사건이다.
2. ㄱ.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지정 - 1872년에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건이다.
3. ㄴ. 뉴저지 레드번 계획 실시 - 1920년대 후반에 전개된 근린주구적 교외계획 실험이다.
4. ㄹ. 세계 조경가협회(IFLA) 창립 - 1948년에 국제 조경가 단체가 창립된 사건이다.

왜 이 순서: 센트럴파크 설계공모 당선이 19세기 중엽에 가장 이르고, 국립공원 제도 성립이 그 뒤를 잇고, 레드번은 자동차 시대의 20세기 교외계획이며, IFLA 창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을 맨 앞에 둔 것이 틀리다. 그린스워드 공모안 당선인 ㄷ은 1858년으로 옐로우스톤 지정인 ㄱ(1872년)보다 앞선다. 올바르게는 ㄷ-ㄱ-ㄴ-ㄹ이다.
② X: ㄷ이 먼저인 점은 맞지만, ㄹ을 ㄴ보다 앞에 둔 것이 틀리다. IFLA 창립은 1948년이고 레드번 계획은 1920년대 후반이므로 ㄴ이 ㄹ보다 앞선다. 올바르게는 ㄷ-ㄱ-ㄴ-ㄹ이다.
③ O: ㄷ-ㄱ-ㄴ-ㄹ은 1858년 센트럴파크 그린스워드 공모안 당선, 1872년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지정, 1920년대 후반 레드번 계획, 1948년 IFLA 창립의 순서와 일치한다.
④ X: ㄷ을 먼저 둔 점은 맞지만, ㄴ을 ㄱ보다 앞에 둔 것이 틀리다. 레드번 계획은 20세기 사건이고 옐로우스톤 지정은 1872년 사건이므로 ㄱ이 ㄴ보다 앞선다. 올바르게는 ㄷ-ㄱ-ㄴ-ㄹ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레드번과 IFLA처럼 모두 20세기 사건을 한 덩어리로 외우면 ②처럼 ㄴ과 ㄹ의 순서를 바꾸기 쉽다. 또 옐로우스톤과 센트럴파크를 모두 미국 조경사 초기 사건으로만 기억하면 ①처럼 ㄱ을 ㄷ보다 앞에 두는 실수가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경사 순서형 문항은 먼저 19세기 도시공원, 다음으로 19세기 국립공원, 그다음 20세기 근대 도시계획, 마지막으로 전후 국제조직의 흐름으로 큰 시대 구획을 잡으면 빠르게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센트럴파크 1858 -> 옐로우스톤 1872 -> 레드번 1920년대 후반 -> IFLA 1948의 흐름이다.

NoteBase

문 6. <보기>에서 설명하는 장소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건물 후원에는 아름다운 화계가 조성되어 있고 괴석분들이 화목과 어울려 놓여 있다. 특히 한정당 마당 앞에 있는 괴석분은 대단한 운치가 있다. 괴석분에 “소영주”라고 새겨져 삼신산을 상징하였다.

① 고대전
② 낙선재
③ 통명전
④ 대조전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창덕궁 낙선재 권역의 후원 구성과 한정당 앞 괴석분 "소영주"를 장소 단서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교태전은 경복궁 왕비의 침전으로 뒤편 아미산 화계와 굴뚝이 대표 요소이다.
낙선재는 창덕궁의 생활 공간으로 한정당과 후원 화계, 그리고 "소영주"가 새겨진 괴석분이 함께 떠오르는 곳이다.
통명전은 창경궁의 왕비 침전으로 문제의 한정당·소영주 단서와 연결되지 않는다.
대조전은 창덕궁의 침전 공간이지만 문제의 핵심 단서인 한정당 앞 괴석분 "소영주"의 장소는 아니다.

선지별 해설

1번: X. 교태전은 경복궁 왕비의 침전으로 뒤편에 아미산 화계와 굴뚝이 유명하다. 틀린 부분은 교태전을 한정당 앞 "소영주" 괴석분이 있는 장소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이 설명은 낙선재 권역을 가리킨다.
2번: O. 낙선재 후원에는 화계와 괴석분이 조성되어 있고, 한정당 마당 앞 괴석분에 "소영주"가 새겨져 삼신산을 상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기의 장소 단서가 그대로 일치한다.
3번: X. 통명전은 창경궁의 왕비 침전으로 문제에서 제시한 한정당과 "소영주" 괴석분 단서가 없다. 틀린 부분은 통명전을 낙선재 권역의 후원 경관과 같은 장소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낙선재이다.
4번: X. 대조전은 창덕궁의 침전 공간이지만 보기의 결정적 단서는 "한정당 마당 앞"과 괴석분의 명칭 "소영주"이다. 틀린 부분은 같은 창덕궁 권역이라는 이유로 대조전을 고른 점이다. 올바르게는 한정당을 포함하는 낙선재 권역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교태전과 대조전은 모두 궁궐 여성 생활공간과 후원 경관이 연상되어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일반적인 화계 이미지가 아니라 "한정당"과 "소영주"라는 고유명사 단서를 잡아야 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궁궐 건축 문제에서 특정 전각 이름이나 석물 이름이 보이면 먼저 그 고유명사가 속한 권역을 찾는다. 한정당과 소영주가 함께 나오면 낙선재 권역으로 좁혀진다.

암기 포인트

낙선재 = 한정당 + 후원 화계 + 괴석분 "소영주"이다.

NoteBase

문 7. <보기>에서 설명하는 백제시대 정원 유적의 조성 연대와 그 유적에 대해 기록된 문헌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부여의 부소산 남쪽 대지에 조성한 궁원
• 20여 리 밖에서 물을 끌어들여 지당을 조성하고 물가에 버드나무 식재
• 신선사상에서 유래한 방장선산(方丈仙山)을 상징하는 섬 조성

① 무령왕 12년(서기 512년), 『제왕운기』
② 개로왕 35년(서기 523년), 『삼국유사』
③ 성왕 20년(서기 600년), 『동사강목』
④ 무왕 35년(서기 634년), 『삼국사기』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부여 궁남지의 유적 특징을 보고 해당 유적의 조성 시기와 이를 전하는 대표 문헌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보기>는 백제 궁남지를 설명한다. 궁남지는 부여 부소산 남쪽에 조성된 백제의 궁원 유적으로 이해된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왕 35년조에는 궁 남쪽에 연못을 파고 20여 리 밖에서 물을 끌어들이며, 버드나무를 심고, 가운데 섬을 만들어 방장선산을 상징하게 했다고 전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무령왕 12년(서기 512년), 『제왕운기』'이다. <보기>의 핵심 단서인 궁 남쪽 연못, 20여 리의 도수, 버드나무, 방장선산은 궁남지의 특징이며 조성 기록은 무령왕대가 아니라 무왕 35년의 기록과 연결된다. 올바르게는 '무왕 35년(서기 634년), 『삼국사기』'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개로왕 35년(서기 523년), 『삼국유사』'이다. 궁남지의 대표 조성 기록은 『삼국유사』가 아니라 『삼국사기』에 실려 있고, 시기도 개로왕대가 아니라 사비시대 무왕대이다. 올바르게는 '무왕 35년(서기 634년), 『삼국사기』'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성왕 20년(서기 600년), 『동사강목』'이다. 궁남지를 직접 설명하는 핵심 사료는 후대 편찬 사서인 『동사강목』이 아니라 백제본기 기록을 담은 『삼국사기』이다. 조성 시기도 성왕 20년이 아니라 무왕 35년이다. 올바르게는 '무왕 35년(서기 634년), 『삼국사기』'이다.
④ O
'무왕 35년(서기 634년), 『삼국사기』'는 궁남지의 조성과 가장 정확하게 대응한다. 궁남지는 백제 무왕 때 조성된 연못 정원 유적으로, 20여 리 밖의 물을 끌어들이고 연못 가운데 섬을 두어 방장선산을 상징하게 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전한다.

오답 포인트

보기의 단서를 유적명으로 바로 묶지 못하면 왕명과 연대, 사서 이름을 각각 따로 외운 흔적에 끌리기 쉽다. 특히 무왕 관련 설화가 『삼국유사』에도 보이므로 ②를 그럴듯하게 볼 수 있지만, 조성 연대와 조경 내용의 직접 기록은 『삼국사기』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여, 궁 남쪽 연못, 20여 리 도수, 버드나무, 방장선산이라는 단서가 보이면 먼저 궁남지를 떠올린다. 그다음 궁남지는 사비시대 무왕대 유적이고 대표 기록 문헌은 『삼국사기』라는 순서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궁남지 = 부여 궁원 = 무왕 35년(634) = 『삼국사기』이다.

NoteBase

문 8. 창덕궁 후원 반도지에 위치한 부채꼴 모양의 정자(亭子) 명칭은?

① 관람정(觀纜亭)

② 존덕정(尊德亭)

③ 청의정(淸漪亭)

④ 청심정(淸心亭)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창덕궁 후원 정자들의 명칭을 연못과 입지, 형태 특징에 연결해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람정은 반도지 가에 놓인 부채꼴 모양의 정자이며 『궁궐지』에는 선자정이라고도 기록된다.
존덕정은 관람정이 있는 연못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의 정자이며 옛 이름이 육면정이다.
청의정은 옥류천 권역에 있는 초가 정자로, 궁궐 안 농경 의례와 관련해 기억하는 정자이다.
청심정은 존덕정 뒤 산중턱에 있는 네모난 정자이며 앞에 빙옥지라는 작은 돌 연못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반도지에 위치한 부채꼴 모양 정자는 관람정이다. 국가유산청 자료에도 관람정을 일명 반도지 가에 놓인 부채꼴 모양의 정자라고 설명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반도지에 위치한 부채꼴 모양'이다. 존덕정은 관람정이 있는 연못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의 정자이며, 원래 육면정으로 불렸던 정자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반도지의 부채꼴 정자'에 청의정을 대응한 부분이다. 청의정은 옥류천 권역의 초가 정자로 농경 행사와 연결해 기억하는 정자이지, 반도지의 부채꼴 정자가 아니다.

④ X
틀린 표현은 '반도지의 부채꼴 정자'에 청심정을 대응한 부분이다. 청심정은 존덕정 뒤 산중턱의 네모난 정자이며, 앞에 빙옥지라는 돌 연못이 있는 별개의 공간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보기의 네 정자 모두 실제로 창덕궁 후원에 있는 정자라서 이름만 어렴풋이 알면 헷갈리기 쉽다. 이 문항은 '반도지'와 '부채꼴'이라는 위치·형태 단서를 관람정에 정확히 연결하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후원 정자 문제는 이름만 외우지 말고 대표 단서를 함께 묶어 판단한다. 반도지와 부채꼴이 나오면 관람정, 연못을 내려다보는 언덕이면 존덕정, 옥류천의 초가면 청의정, 빙옥지 앞 네모 정자면 청심정으로 구분된다.

암기 포인트

반도지의 부채꼴 정자=관람정, 언덕 위 육면정=존덕정, 옥류천 초가=청의정, 빙옥지 앞 네모 정자=청심정이다.

NoteBase

문 9. <보기>는 조선시대 한양의 도성계획을 설명한 것이다. (가)~(라)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주례고공기(周禮考工記)』의 도시시설 배치 원칙 중 하나인 좌묘우사(左廟右社)에 따라 경복궁의 왼쪽에는 종묘가, 오른쪽에는 (가) 이/가 조성되었다. 도성의 주요 도로망으로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에서 남쪽으로 (나) 을/를 계획하였으며, 좌우로 의정부와 6조 등 주요 관아가 설치되었다. 풍수지리사상에 의해 내사산(內四山)으로 (다) 을/를 안산(案山)으로 삼고, 북악산을 주산(主山)으로 삼았다. 도시의 유수와 하수 처리를 위해 1406년 태종은 내명당수(內明堂水)인 (라) 의 대규모 수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① (가) - 사직단
② (나) - 주작대로
③ (다) - 관악산
④ (라) - 청계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 한양 도성계획의 기본 원리인 좌묘우사, 주작대로, 내사산의 안산·주산, 청계천의 기능을 정확히 대응시키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좌묘우사는 궁궐을 기준으로 왼쪽인 동쪽에 종묘, 오른쪽인 서쪽에 사직을 두는 배치 원칙이다.
주작대로는 광화문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한양 도성의 중심 축 도로이다.
안산은 도성 앞쪽을 받쳐 주는 산이고, 주산은 뒤쪽에서 도성을 감싸는 중심 산이다.
청계천은 한양 도성 내부의 대표 수계로 유수와 배수를 담당한 내명당수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좌묘우사에 따라 경복궁 동쪽에는 종묘, 서쪽에는 사직단을 두었다. 따라서 (가)를 사직단으로 본 것은 맞다.
2번 O: 광화문에서 남쪽으로 뻗는 한양의 중심 축 도로는 주작대로이다. 좌우에 의정부와 육조 등 주요 관아가 배치된 중심 가로라는 점에서도 맞다.
3번 X: 틀린 부분은 '(다)-관악산'이다. 풍수지리에서 한양의 안산은 남산이고, 북악산이 주산이다. 관악산은 내사산의 안산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다)-남산'이다.
4번 O: 청계천은 내명당수로서 도성의 유수와 하수 처리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라)를 청계천으로 본 것은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안산과 주산의 대응을 헷갈리거나, 한양 주변의 유명한 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악산을 내사산으로 오인하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관악산이라는 익숙한 지명을 끼워 넣어 남산을 떠올리지 못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양 도성 문제는 먼저 좌묘우사로 종묘와 사직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어 북악산=주산, 남산=안산, 청계천=내명당수의 대응을 순서대로 대입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동쪽 종묘, 서쪽 사직, 북악 주산, 남산 안산, 청계천 내명당수이다.

NoteBase

문 10. 중국 원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졸정원, 유원, 이화원은 소주(蘇州)지역의 대표 원림이다.
ㄴ. 원명원에서 가장 큰 호수는 복해(福海)이다.
ㄷ. 사자림 남서쪽에 위치한 선자정(扇子亭)의 지붕 형태는 부채꼴이다.
ㄹ. 피서산장은 크게 만수산 공간과 곤명호 공간으로 구분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국 원림의 대표 원림 위치와 각 원림의 핵심 공간 요소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주의 대표 원림은 졸정원·유원 같은 강남 사가원림이고, 이화원은 북경의 대표 황가원림이다.
원명원은 대수면인 복해가 중심 경관을 이루며, 사자림의 선자정은 이름 그대로 부채를 본뜬 형태로 알려진다.
피서산장은 궁전구·호수구·평원구·산지구로 나뉘며, 만수산과 곤명호의 구분은 이화원의 공간 구성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이 틀리고 ㄴ은 옳다. ㄱ의 "이화원은 소주 지역의 대표 원림"이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졸정원과 유원은 소주 지역의 대표 원림이고, 이화원은 북경의 대표 황가원림이다. ㄴ의 복해는 원명원에서 가장 큰 호수라는 설명이 맞다.
② X: ㄱ이 틀리고 ㄷ은 옳다. ㄱ의 오류는 ①과 같고, ㄷ의 선자정은 사자림 남서쪽에 있으며 부채를 편 모양을 형상화한 정자라는 점에서 옳다.
③ O: ㄴ과 ㄷ이 모두 옳다. 원명원의 최대 호수는 복해이고, 사자림의 선자정은 부채꼴 지붕 형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④ X: ㄷ은 옳지만 ㄹ이 틀리다. ㄹ의 "피서산장은 크게 만수산 공간과 곤명호 공간으로 구분된다"가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피서산장은 궁전구·호수구·평원구·산지구로 나뉘고, 만수산과 곤명호의 이분 구도는 이화원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소주 원림, 북경 황가원림, 청대 이궁원림의 이름이 한 묶음으로 제시되면 지역과 원림 유형이 섞여 헷갈리기 쉽다. 특히 ㄹ처럼 피서산장의 공간 구성을 이화원의 만수산·곤명호 구성과 뒤바꾸는 문제가 자주 함정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국 원림 문제는 먼저 원림 이름을 지역과 유형에 연결해 판단한다. 소주 사가원림인지, 북경 황가원림인지, 청대 별서원림인지부터 가른 뒤 대표 공간 요소가 맞는지 확인하면 조합형 선지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소주=졸정원·유원, 북경=이화원, 이화원=만수산·곤명호, 피서산장=궁전구·호수구·평원구·산지구이다.

NoteBase

문 11. 중국의 시대별 정원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漢): 무제 때 건장궁에 태액지를 파고 못 속에 영주, 봉래, 방장섬을 축조하였다.

② 주(周): 문왕 때 신명이 있는 곳에 높이 쌓은 영대와 영소, 새와 짐승을 키워 즐겼던 영유를 조성하였다.

③ 진(晉): 문인들의 풍류문화가 발달하여 난정(蘭亭)에서 곡수연을 즐겼다.

④ 당(唐): 문인화가 송적이 그린 『소상팔경도』가 유행하여 팔경문화가 한국, 일본 등에 전래하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국 정원사의 시대별 대표 정원문화와 관련 사건을 정확히 대응시키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는 영대·영소·영유처럼 왕권과 제의성이 드러나는 초기 원유 문화가 핵심이다.
한은 건장궁의 태액지와 봉래·영주·방장 같은 신선사상형 인공산수 구성이 핵심이다.
진은 난정의 곡수연처럼 문인 풍류와 원림 감상이 핵심이다.
소상팔경도와 팔경문화의 확산은 당이 아니라 송의 문인 취향과 연결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한 무제는 건장궁에 태액지를 만들고 못 안에 영주·봉래·방장섬을 두어 신선사상을 정원에 구현하였다. 한대 궁원 정원의 대표 사례이므로 옳은 선지이다.

② O
주 문왕의 영대·영소·영유는 각각 높은 대, 못, 동식물을 기르는 원유를 가리킨다. 초기 중국 정원에서 제의성과 유희성이 함께 드러나는 사례이므로 옳은 선지이다.

③ O
진대에는 문인들의 풍류문화가 발달하였고, 왕희지 등이 난정에 모여 곡수연을 즐긴 일화가 대표적이다. 문인 원림 문화의 전개를 보여 주는 설명이므로 옳은 선지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당(唐)'이다. 송적(宋迪)의 「소상팔경도」와 이에 따른 팔경문화의 유행은 송대 문인 문화와 연결된다. 올바르게는 '송(宋): 문인화가 송적이 그린 「소상팔경도」가 유행하여 팔경문화가 한국, 일본 등에 전래하였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작품명과 팔경문화라는 익숙한 키워드만 기억하면 넘어가기 쉽고, 실제 함정은 시대 구분이다. 소상팔경과 송적을 묶어 기억하지 않으면 당과 송을 뒤바꾸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국 정원사 문항은 먼저 시대별 대표 키워드를 짝지어 판단한다. 주는 영대·영소·영유, 한은 태액지와 삼신산, 진은 난정과 곡수연, 송은 소상팔경과 문인 취향으로 연결하면 오답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한은 태액지, 진은 난정, 송은 소상팔경이다.

문 12. <보기>에 해당하는 통일 신라시대 정원의 연못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674년(문무왕 14년)에 조성
• 임해전 건물을 조성하여 바다를 상징
• 연못 안쪽 3개의 인공섬
• 진귀한 새와 짐승을 기름

① 서쪽과 남쪽은 해안을 상징하는 복잡한 곡선으로 자연석을 이용한 호안 처리가 되어 있다.
② 입수구의 석구(石口)는 유입되는 물에 섞인 흙이나 모래를 가라앉힌다.
③ 입수구 전면의 가장 큰 섬은 물의 흐름을 조절한다.
④ 연못 바닥에 점토와 자갈을 깔았으며, 강회다짐기법을 통해 방수 처리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통일신라 동궁과 월지의 조성 배경과 연못 구조, 특히 호안 형식과 입수·배수 처리의 특징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월지는 문무왕 14년(674)에 조성된 통일신라 궁원 연못으로, 3개의 인공섬과 입수·출수 시설을 통해 바다를 축소 재현하고 수질까지 관리한 정원이다.
호안 표현의 핵심은 북쪽과 동쪽은 굴곡과 12봉우리로 자연 해안과 산악 경관을 상징하고, 서쪽과 남쪽은 궁궐 건물과 맞닿아 비교적 직선적이고 인공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이다.
입수부는 이물질 제거, 토사 침전, 산소 공급을 고려한 구조이고 섬 배치는 상징성뿐 아니라 물 흐름 분산에도 관여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서쪽과 남쪽은 해안을 상징하는 복잡한 곡선"이다.
월지에서 복잡한 곡선으로 바다의 해안선을 상징한 쪽은 북쪽과 동쪽이다. 서쪽과 남쪽은 임해전 등 건물 영역과 연결되어 상대적으로 직선적이고 인공적인 호안 처리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② O
입수구는 직선 수로, 2단 석조, 작은 못, 폭포로 이어지는 구조이며, 이 과정에서 흙·모래 같은 이물질을 걸러내고 가라앉혀 보다 깨끗한 물이 유입되도록 설계되었다. 선지의 취지는 입수부가 침전과 정화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타당하다.

③ O
입수된 물은 섬 배치에 의해 바로 직진하지 않고 흐름이 분산된다. 입수구 전면의 큰 섬은 상징 경관 요소이면서도 유수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므로 선지의 설명은 맞다.

④ O
월지 바닥은 점토와 자갈 등을 활용해 바탕을 다지고 방수성을 높인 것으로 이해한다. 강회다짐을 이용한 바닥 처리 역시 연못의 누수 방지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명으로 타당하다.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복잡한 곡선 호안"이라는 표현만 보고 막연히 전 방향이 자연형이었다고 오해하기 쉽다. 이 문항은 해안 상징의 위치를 바꿔 적은 ①의 방향어, 즉 "서쪽과 남쪽"을 틀리게 바꿔 놓은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일신라 궁원 연못 문제는 먼저 조성 연대, 인공섬 수, 상징 경관의 방향, 입수·출수 시설의 기능을 분리해서 본다. 특히 방향어가 들어간 선지는 북·동과 서·남의 대비가 바뀌었는지 먼저 확인하면 오답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월지는 674년, 3개 인공섬, 북·동은 굴곡 해안 상징, 서·남은 직선 호안이라는 구조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3. 조선시대 경복궁 후원에 위치했던 건물 및 장소가 아닌 것은?

① 융문당
② 융무당
③ 경무대
④ 춘당대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복궁 후원 경무대 권역의 건물과 다른 궁궐 후원 시설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무대는 경복궁 신무문 밖 후원 일대의 공간이다.
융문당은 경무대의 중심 전각으로 문무과 전시와 군대 사열 등에 쓰인 건물이다.
융무당은 융문당과 함께 경무대의 중심을 이루며 군사 훈련과 무예 시연에 쓰인 건물이다.
춘당대는 경복궁 후원이 아니라 창경궁 후원의 대표적 장소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융문당은 경복궁 후원 경무대의 중심 전각이다. 따라서 경복궁 후원에 위치했던 건물로 보는 것이 맞다.
② O. 융무당은 융문당과 함께 경무대의 중심 건물로 조성되었다. 따라서 경복궁 후원 시설이라는 판단이 맞다.
③ O. 경무대는 경복궁 신무문 밖의 후원 공간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따라서 경복궁 후원에 위치했던 장소라는 설명이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경복궁 후원'이다. 춘당대는 경복궁 후원이 아니라 창경궁 후원의 장소이다.

오답 포인트

궁궐 후원 관련 명칭은 모두 비슷한 한자어라서 같은 궁궐 소속으로 묶기 쉽다. 이 문항은 경복궁 후원의 경무대 권역과 창경궁의 춘당대를 섞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궁궐사 문항은 개별 전각 이름만 보지 말고 어느 궁궐의 어느 권역에 속하는지 함께 묶어 판단한다. 경복궁 후원은 경무대와 그 주변 전각으로, 춘당대는 창경궁 후원 시설로 정리하면 빠르게 걸러진다.

암기 포인트

경복궁 후원은 경무대·융문당·융무당이고, 춘당대는 창경궁이다.

NoteBase

문 14. 일본 도산(桃山) 시대 '와비'와 '사비'의 개념에 충실했던 천리휴(千利休)의 다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에 있으면서 마치 산중에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② 다도의 와비와 사비를 느끼게 하는 낙엽수를 애용하였다.

③ 자연의 단편을 취해 대자연의 운치를 연상시키고자 하였다.

④ 이끼가 끼어 있는 정원에서 고담과 한적함을 느끼는 개념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센노리큐의 다정원에 구현된 와비·사비의 미학과 다정원의 공간 연출·식재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와비는 꾸밈을 덜어 낸 소박함과 절제의 미를 중시하는 개념이다.
사비는 오래됨, 고요함, 한적함에서 느껴지는 정취를 중시하는 개념이다.
천리휴의 다정원은 도시 안에서도 산중 초암에 들어가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화려한 장식보다 자연스러운 재료와 절제된 식재로 정신적 정화를 유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다정원은 속세를 떠나 산중 암자에 들어가는 듯한 심리적 전이를 만드는 공간이다. 도시에 있으면서도 산중에 있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설명은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낙엽수를 애용하였다'이다. 다정원은 와비·사비의 절제된 분위기를 위해 화려한 계절감보다 상록수와 관목 중심의 차분한 식재를 기본으로 하며, 낙엽수를 애용한 정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O: 다정원은 자연을 축소·암시하여 대자연의 정취를 연상시키는 일본 정원의 표현을 따른다. 자연의 단편으로 전체 자연의 운치를 떠올리게 한다는 설명은 맞다.
④ O: 사비는 시간의 흔적이 밴 고요함과 한적함의 미를 뜻하므로, 이끼가 낀 오래된 정원에서 고답적 정취와 적막을 느끼는 감각과 연결된다. 와비·사비 정원의 정서 설명으로 타당하다.

오답 포인트

②는 와비·사비를 가을 정취나 낙엽의 이미지로만 연상하면 고르기 쉽다. 그러나 센노리큐의 다정원은 화려한 계절 변화보다 절제된 녹음과 소박한 재료감으로 산중의 고요함을 만드는 데 초점이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다정원 문제가 나오면 먼저 산중 초암 같은 고요함, 절제된 식재, 자연을 축소해 전체 자연을 암시하는 표현인지 확인한다. 화려한 꽃, 과장된 장식, 낙엽수 중심의 계절 연출이 앞세워지면 다정원의 본래 성격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다정원은 산중 분위기, 와비는 소박함, 사비는 오래된 고요함이다.

NoteBase

문 15. 중국 청나라 시대 북경 서북쪽 교외에 위치한 황가원림 중 삼산오원(三山五園)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화산 소원(小園)

② 향산 정의원(靜宜園)

③ 옥천산 정명원(靜明園)

④ 원명원(圓明園)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청나라 시기 북경 서북 교외 황가원림군인 삼산오원의 구성 명칭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삼산오원은 청나라 시기 북경 서북 교외에 조성된 황가원림군을 가리키는 말이다. 핵심은 개별 명칭이 그 원림군의 실제 구성원인지 여부를 기억하는 데 있으며, 향산의 정위원(靜宜園), 옥천산의 정명원(靜明園), 원명원(圓明園) 등은 여기에 속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구화산 소원(小園)"을 삼산오원 구성원처럼 제시한 점이다. 구화산 소원은 북경 서북 교외의 황가원림군인 삼산오원의 구성 명칭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삼산오원에 속하는 원림 명칭으로 정위원, 정명원, 청의원, 원명원, 창춘원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② O. 향산 정위원(靜宜園)은 삼산오원을 이루는 대표 황가원림 가운데 하나이므로 옳다.
③ O. 옥천산 정명원(靜明園)도 삼산오원 구성원에 해당하므로 옳다.
④ O. 원명원(圓明園)은 삼산오원의 오원 가운데 하나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삼산오원을 "세 산과 다섯 정원"의 묶음으로 보지 않고 개별 원림 이름만 단편적으로 외우면 ①의 낯선 명칭에도 흔들리기 쉽다. 이 문항은 실제 구성원인지, 단지 비슷한 한자식 명칭인지 구별하는 함정을 둔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북경 서북 교외의 황가원림군이라는 큰 범주를 먼저 떠올린 뒤, 선지의 명칭이 그 묶음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대표 원림인지 확인하면 된다. 정위원, 정명원, 원명원처럼 잘 알려진 구성원은 살리고, 생소한 별도 명칭은 제외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삼산오원은 북경 서북 교외 황가원림군이며, 정위원·정명원·원명원은 포함되고 구화산 소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NoteBase

문 16. 조선시대 별서정원의 조영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담양 소쇄원 - 보길도 윤선도 원림 - 예천 초간정 원림 - 서울 옥호정

② 예천 초간정 원림 - 담양 소쇄원 - 서울 옥호정 - 보길도 윤선도 원림

③ 담양 소쇄원 - 예천 초간정 원림 - 보길도 윤선도 원림 - 서울 옥호정

④ 예천 초간정 원림 - 보길도 윤선도 원림 - 담양 소쇄원 - 서울 옥호정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조선시대 대표 별서정원의 조성 시기를 앞뒤 관계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담양 소쇄원 - 양산보가 조성한 대표적 별서정원으로 조선 중기인 16세기 전반에 해당한다.
2. 예천 초간정 원림 - 권문해와 관련된 원림으로 16세기 후반에 해당한다.
3. 보길도 윤선도 원림 - 윤선도가 보길도에 조성한 원림으로 17세기 전반에 해당한다.
4. 서울 옥호정 - 조선 후기 한양의 별서정으로 위 세 정원보다 늦다.

왜 이 순서: 소쇄원이 가장 이르고, 초간정 원림이 그 뒤의 16세기 후반, 윤선도 원림이 17세기 전반, 옥호정이 조선 후기에 해당하므로 ③의 배열만 시간 흐름과 맞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담양 소쇄원 다음에 보길도 윤선도 원림을 둔 부분이 틀리다. 예천 초간정 원림은 16세기 후반이고 보길도 윤선도 원림은 17세기 전반이므로 초간정 원림이 먼저이다. 틀린 표현은 "보길도 윤선도 원림 - 예천 초간정 원림"이고, 올바르게는 "예천 초간정 원림 - 보길도 윤선도 원림"이다.

② X
맨 앞의 "예천 초간정 원림 - 담양 소쇄원" 순서가 틀리다. 담양 소쇄원은 16세기 전반의 정원으로 초간정보다 앞선다. 틀린 표현은 "예천 초간정 원림 - 담양 소쇄원"이고, 올바르게는 "담양 소쇄원 - 예천 초간정 원림"이다.

③ O
담양 소쇄원, 예천 초간정 원림, 보길도 윤선도 원림, 서울 옥호정의 배열이 조선 중기 전반에서 후기로 이어지는 실제 조성 시기 흐름과 맞는다.

④ X
담양 소쇄원을 세 번째에 둔 부분이 틀리다. 소쇄원은 네 곳 가운데 가장 이른 축에 속하므로 맨 앞에 와야 한다. 틀린 표현은 "예천 초간정 원림 - 보길도 윤선도 원림 - 담양 소쇄원"이고, 올바르게는 "담양 소쇄원 - 예천 초간정 원림 - 보길도 윤선도 원림"이다.

오답 포인트

소쇄원, 초간정 원림, 윤선도 원림이 모두 조선 중기 이후의 별서정원이라서 비슷한 시기로 뭉뚱그려 기억하면 순서가 흔들린다. 특히 ①처럼 초간정 원림과 윤선도 원림의 선후를 바꾸거나, ④처럼 가장 이른 소쇄원을 뒤로 보내는 함정에 걸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별서정원 순서 문제는 각 정원을 정확한 연도 하나로 외우기보다 16세기 전반, 16세기 후반, 17세기 전반, 조선 후기처럼 시대 묶음으로 먼저 나눈 뒤 선지를 대조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소-초-윤-옥 = 16전반 - 16후반 - 17전반 - 조선후기이다.

NoteBase

문 17. 일본 용안사(龍安寺) 방장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평안(平安) 중기에 선종 사찰에서 유행하였던 정원양식이다.

② 색채가 다양한 정원석을 사용한 대표적인 서원조정원이다.

③ 토담으로 둘러싸인 평지에 흰모래를 깔고, 크고 작은 15개의 정원석을 배치하였다.

④ 소굴원주(小堀遠州)의 작품으로 배가 파도에 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용안사 방장정원의 시대, 양식, 구성 요소를 다른 일본 정원 유형과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용안사 방장정원은 무로마치기에 성립한 선종 사찰의 평지형 고산수 정원이다. 토담으로 둘러싼 평지에 흰모래를 깔고 15개의 정원석을 배치한 절제된 구성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평안 중기'이다. 용안사는 1450년에 세워진 무로마치기 사찰이고, 방장정원도 선종 미학을 보여 주는 고산수 정원으로 이해된다. 올바르게는 '무로마치기의 선종 사찰에서 발달한 정원 양식이다'가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색채가 다양한 정원석'과 '대표적인 서원조정원'이다. 용안사 방장정원은 화려한 색석을 과시하는 정원이 아니라 흰모래와 15석의 대비로 구성한 절제된 고산수 정원이다. 올바르게는 '백사와 석조 구성의 대표적 선종 고산수 정원이다'가 맞다.
③ O: 토담으로 둘러싸인 평지에 흰모래를 깔고 크고 작은 15개의 정원석을 배치하였다는 설명은 용안사 방장정원의 핵심 특징과 일치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소굴원주의 작품'과 '배가 파도에 떠 있는 모습을 표현'이다. 용안사 방장정원은 작자가 확정된 소굴원주의 정원으로 보지 않으며, 배의 형상을 묘사한 정원으로 설명되지도 않는다. 올바르게는 '작자 확정이 어려운 선종 고산수 정원으로, 백사와 15석의 추상적 구성이 핵심이다'가 맞다.

오답 포인트

①은 '선종 사찰'이라는 말 때문에 맞아 보이지만 시대가 틀렸고, ②는 '서원조'와 '다양한 색채'라는 화려한 표현이 함정이다. ④는 소굴원주라는 유명 작가명이 시선을 빼앗지만, 용안사는 작가명보다 백사·15석·토담의 구성이 먼저 떠올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용안사가 나오면 먼저 토담, 평지, 흰모래, 15석, 선종 고산수라는 다섯 단서를 확인한다. 반대로 평안기, 서원조의 화려한 석조, 소굴원주의 작가명 같은 단서가 붙으면 다른 정원 설명으로 본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용안사 방장정원은 토담 안 백사 위 15석을 둔 평지형 고산수 정원이다.

NoteBase

문 18. 강릉 선교장의 부속 별장인 방해정(放海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859년 건립되었다.

② 주변을 금잔디로 가꿔 이가원(李家園)이라고도 불렀다.

③ 옛 경포대 자리에 위치한 경포호변의 승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름났다.

④ 명칭은 도연명의 「귀거래사」에서 유래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방해정의 건립 시기, 별칭, 경포호변 입지, 선교장 각 건물의 명칭 유래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방해정은 강릉 선교장의 부속 별장으로 이봉구가 1859년에 지은 경포호변의 누정이다. 선교장 건물 가운데 도연명의 「귀거래사」에서 이름을 딴 것은 방해정이 아니라 사랑채 열화당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방해정은 조선 철종 10년인 1859년에 처음 지어진 건물로 본다. 따라서 건립 연대를 1859년으로 보는 설명은 맞다.
2번 O: 방해정은 후대에 주변을 정원처럼 가꾸면서 이가원(李家園)이라고도 불렸다. 별칭을 묻는 선지로서 타당하다.
3번 O: 방해정 일대는 경포호를 내려다보는 절승지로 알려져 있고, 옛 경포대 및 인월사 터와 연결되는 경포호변 명승의 맥락에서 이해한다. 따라서 경포호변의 승지라는 설명은 맞는 취지이다.
4번 X: 틀린 표현은 '명칭은 도연명의 「귀거래사」에서 유래했다'이다. 올바르게는 도연명의 「귀거래사」에서 이름을 딴 건물은 선교장의 사랑채 열화당이고, 방해정은 그와 다른 별장 이름이다.

오답 포인트

선교장 관련 건물들을 한 묶음으로 외우면 열화당의 명칭 유래를 방해정에 잘못 옮겨 붙이기 쉽다. 이 문제는 같은 선교장 권역 안의 건물이라도 건립 시기와 이름 유래가 각각 다르다는 점을 노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통 조경 유적 문항은 건물별로 건립 연대, 기능, 별칭, 이름의 출전을 따로 대조하면 풀린다. 특히 '1859·경포호변 별장·이가원=방해정', '귀거래사 유래=열화당'처럼 짝을 맞추면 오답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방해정은 1859년의 경포호변 별장이고, 귀거래사는 열화당의 이름 유래이다.

NoteBase

문 19. 담양 소쇄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북쪽 장원봉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임천(林川)이 주된 경관자원이다.

② 건물의 위계에 따라 광풍각, 곡수당, 대봉대 순으로 배치하였다.

③ 소쇄원의 식생 중 초본류는 순채, 파초, 부용 등이 있다.

④ 나무 홈통에 물길을 연결하는 비구(飛溝)를 설치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쇄원의 공간 구성, 주요 건물과 대, 식생, 수경 시설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쇄원은 북쪽 장원봉 계곡에서 내려오는 임천을 중심으로 경관이 전개되는 조선 중기 별서원림이다. 광풍각은 계류에 면한 정자이고 제월당은 안쪽의 거처이며, 대봉대는 건물이 아니라 바깥쪽에 놓인 대이다. 비구는 홈을 판 나무를 이용해 물을 끌어들이는 수경 장치이고, 순채·파초·부용은 소쇄원에 식재된 대표 초본류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북쪽 장원봉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임천이 소쇄원의 중심 경관 요소라는 설명이므로 옳다. 소쇄원은 계류의 흐름을 따라 공간과 경물이 전개되는 임천 중심 원림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곡수당"과 "광풍각, 곡수당, 대봉대 순으로 배치하였다"이다. 소쇄원의 대표 건물은 광풍각과 제월당이며, 대봉대는 건물이 아니라 대이다. 따라서 소쇄원을 건물 위계에 따라 "광풍각, 곡수당, 대봉대"로 설명하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임천을 중심으로 광풍각과 제월당, 대봉대 등의 공간이 구성된다고 이해한다.

③ O
순채, 파초, 부용은 소쇄원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초본류이므로 옳다. 수생 또는 관상 초본을 함께 두어 계류와 연못 주변의 풍취를 살린다.

④ O
비구는 홈을 판 나무를 이용해 물길을 연결하는 장치이므로 옳다. 소쇄원에서는 이러한 수경 장치를 두어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경관에 활용하였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소쇄원 문제에서는 건물 이름과 공간 이름을 뒤섞어 내는 함정이 자주 나온다. ②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명인 "곡수당"을 끼워 넣고, 대봉대처럼 건물이 아닌 공간까지 같은 층위로 배열해 혼동을 유도한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통원림 문제는 먼저 임천, 정자, 당, 대, 수경 시설처럼 대상의 종류를 구분한 뒤 본다. 건물인지 대인지, 식생인지 시설인지부터 나누면 낯선 명칭이 섞여도 오답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소쇄원은 임천 중심 원림이고, 광풍각·제월당은 건물, 대봉대는 대, 비구는 물을 잇는 나무 홈통이다.

NoteBase

문 20. 한·중·일 조경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나 독자적인 조경문화를 형성했다.

② 『작정기(作庭記)』에는 침전조 정원에 관한 조성법이 기록되어 있다.

③ 홍만선이 작성한 『순원화훼잡설(淳園花卉雜說)』에는 장소에 따른 재식법을 소개하고 있다.

④ 원명원과 이화원은 중국 청나라 시대의 대표적인 원림에 해당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한·중·일 조경사의 대표 저작, 저자, 원림 사례를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한국과 일본의 조경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각 지역의 자연관과 생활양식에 맞게 독자적으로 전개되었다.
『작정기(作庭記)』는 일본 헤이안 시대의 정원서로 침전조 정원의 조성 원리를 전한다.
『순원화훼잡설(淳園花卉雜說)』은 조선 후기 신경준의 저술로 알려져 있으며, 홍만선의 저작이 아니다.
원명원과 이화원은 모두 청나라를 대표하는 중국의 황가 원림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한국과 일본은 모두 중국 조경의 영향을 받았으나 지형, 종교관, 생활양식의 차이 속에서 각기 다른 정원 문화를 발전시켰다. 중국 영향과 독자성의 병존을 함께 말한 문장이므로 옳다.

② O
『작정기(作庭記)』는 일본의 고전 정원서로, 침전조 양식 주택과 연결되는 정원 조성법을 기록한 책이다.
침전조 정원과 연결한 설명이므로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홍만선이 작성한 『순원화훼잡설(淳園花卉雜說)』"라는 저자 연결이다. 『순원화훼잡설』의 저자는 홍만선이 아니라 신경준이므로, 올바르게는 "신경준이 작성한 『순원화훼잡설』"로 고쳐야 한다. 저자와 저작을 잘못 연결했으므로 가장 옳지 않다.

④ O
원명원과 이화원은 모두 중국 청나라 시대를 대표하는 황실 원림이다. 청대 대표 원림 사례를 정확히 든 문장이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조선 후기 원예·조경 관련 저술과 저자를 뒤섞어 놓은 선지이다. 수험생이 홍만선의 『산림경제』와 『순원화훼잡설』을 혼동하면 저자 연결 오류를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경사 선지는 문장 전체를 막연히 읽지 않고 `저자-저작`, `시대-원림`, `국가별 조경 특징`을 분리해서 대조하면 판단이 쉬워진다. 셋 중 한 축이라도 어긋나면 오답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작정기=일본 침전조 정원서, 순원화훼잡설=신경준, 원명원·이화원=청대 황가 원림이다.

NoteBase